



언론에 징벌적 손해제 도입, 위헌 논란 재현되나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과잉 입법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을 9월 중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이 9월 정기국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 14일 언론개혁특위를 출범하고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 중이다. 특위는 아직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본 뼈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과 2021년 징벌적 손해제 추진 시 불거졌던 위헌 논쟁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처벌

법률 전문가들은 언론에 징벌적 손해제를 도입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같이 지우는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로 발전된 제도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는 대부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영미권계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가능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기 때문이다. 반면,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악의적인 보도

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다. 형사적 제재에 더해 민사적으로 처벌적 성격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며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과잉금지 원칙’ 위배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다양한 법률로 언론을 규제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생성·유포자 본인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 유통 금지 규정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있다.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중증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 현행 법령으로도 이번 개정안이 추구하는 법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언론에 적용할 타당성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규제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명확성 원칙’ 위배

개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한 ‘악의적 보도’는 그 정의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도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제 도입

문제점	
이중처벌	형사적 제재에 더해 민사적으로 처벌적 성격의 배상책임을 부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	언론중재법 외 형법·민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규제
명확성 원칙 위배	‘악의적 보도’ 정의가 모호해 자의적 법해석·집행 가능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의 의혹이나 비판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해 규제
전략적 봉쇄 소송 이용 수단	언론에 비용 부담이나 정신적 압박을 가해 비판·후속 보도 봉쇄
국제사회 비판	
세계신문협회(WAN)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 훼손 우려
국제언론인협회(IPJ)	모호한 규정과 개념적 불확실성으로 언론의 비판 보도 위축시킬 것
국제기자연맹(IFJ)	의사 결정에 관한 법률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
UN	언론의 자기검열과 부담을 심화하고, 명예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것

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기본권을 제한하고’,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되며’, ‘법률의 확대해석·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나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의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명목 하에 가짜뉴스가 아닌 오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또한 언론사의 의혹이나 비판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전략적 봉쇄 소송 이용 수단

개정안은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라는 시행 목적과 다르게 ‘언론의 위축’을 노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일명 ‘입막음용 소송’이라 불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은 애초에 승소가 소송의 주목적이 아니라 언론사에 비용 부담이나 정신적 압박을 가해 후속 보도를 막거나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신문의 논조 등에 불만을 품은 기관·기업 등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내용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을 청구해 신문의 신뢰에 흠집을 내는 목적으로 소송을 낚발할 우려가 있다.

국제사회 비판

지난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

언론인협회(IPJ), 국제기자연맹(IFJ), UN 등 국제단체들은 일제히 성명과 보고서를 통해 언론 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당시 세계신문협회는 2021년 8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PJ는 8월 17일 성명에서 개정안에 대해 “모호한 규정과 개념적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IFJ도 8월 20일 “의사 결정에 관한 법률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Irene Khan)은 8월 27일 당시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은 “자의적인 법 집행,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언론의 자기검열과 부담을 심화시킨다”며 “명제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기업의 15가지 비즈니스 모델

세계신문협회 ‘신문의 혁신’ 보고서

미디어 환경이 변함에 따라 언론사의 수익 모델도 다양해지고 있다. 미디어 기업들은 전통적인 구독·광고 수익 외에 이벤트·라이선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본보는 세계신문협회가 해마다 발간하는 ‘신문의 혁신 2025’ 보고서(사진)에서 소개한 미디어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15가지를 소개한다. 한



국신문협회는 ‘신문의 혁신 2025’ 번역본과 세계 신문의 성공 전략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뉴스 미디어 경영 혁신 전략’ 보고서를 9월 중순 발간한다.

①구독 수익 신규 독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언론사들은 충성 독자를 유지하고 신규 독자의 읽기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허스트 신문은 구독 유지에 중요한 상위 5개의 활동으로 웹 방문 뉴스레터 받기 전자자판(e-edition) 방문 앱 방문 뉴스레터 클릭을 파악하고, 이탈 위험이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캠페

인을 운영했다. 그 결과 구독자 관여도를 11%까지 끌어올렸다.

②콘텐츠 라이선스 AI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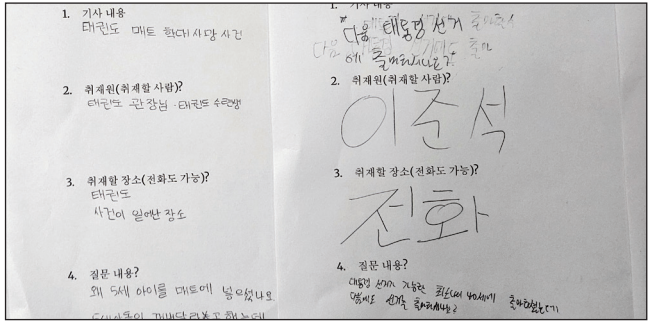
에 콘텐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사에 추가 수익과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미미한 트래픽 증가와 콘텐츠 지배권 상실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명확한 조건 협상, 성과 모니터링, 다양한 수익원을 잘 연계하는 것이 언론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떠오르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③광고 대행 제로 클릭 검색(zero-click searches)과 AI 기반 플랫폼의 부상으로 검색 중심 트래픽에서 전통적으로 발생하던 광고 수익이 한계를 맞고 있다.

④광고 대행 제로 클릭 검색(zero-click searches)과 AI 기반 플랫폼의 부상으로 검색 중심 트래픽에서 전통적으로 발생하던 광고 수익이 한계를 맞고 있다.

▶4면에서 계속

신문기자 진로 탐색 수업을 다녀와서



서울 금천구 한울중학교 학생들의 신문기자 진로 탐색 수업 활동지



신문기자 진로 탐색 수업을 받고있는 충북 진천군 문상초등학교 학생들



김린아

문화일보 사회부 기자

“수업은 Feel이 있어야 한다.”

지난 7월 10일, 서울 금천구 한울중학교 벽에 걸린 급훈이다. 지난해에 이어 신문협회 교육으로 다시 찾은 이곳. 교탁 맞은편에 걸린 문구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래, 오늘 수업 Feel 있게 가보자.

“화면에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지요? 혹시 실제로 본 사람 있어요? 손!”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작년 수업과 달리, 올해는 조금 더 과감하게 던져본다. 중학교 2학년을 움직이기 위해선 가끔은 엉뚱함도 필요하니까.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손을 든다. “학원 가는 길에 봤어요! 엄청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해요! (진짜?) 아뇨, 장난이요 ㅎㅎ.”

“선생님은 2023년 국회 출입하면서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자주 봤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요. 정당 회의도 따라다니면서 말 하나, 표정 하나까지 다 기록했어요.” 아이들에게 실감 나는 얘기를 들려주자 눈망울이 커진다. 그 분위기를 타고 수업의 속도

를 조금씩 높여본다.

실제 취재 워딩을 보여줬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도착 시간, 표정, 말투까지 실시간으로 받아 적어요. 여기 별표 표시 있죠? 그건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자는 현장에서 판단하고 기록해야 하거든요.”

대통령 유세 현장 스케치 기사를 예로 들어, 기사 구성에 필요한 요소도 설명한다. 스케치, 육하원칙, 취재원, 기사 가치,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뜻하는 ‘야마’ 까지. 수습기자 시절 선배에게 배운 모든 걸 꺼내본다.

이론을 마치고 이어진 건 실습. 아이들이 직접 취재 계획서를 써본다.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전화해서, 8% 득표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래요.” “저는 미국에서 시위 중인 이민자들을 인터뷰할 거예요.” 수업 초반에 장난기 가득하던 얼굴들이, 어느새 진지해져 있다. 예상치 못한 질문도 나온다. “김린이 기자님은 기자로서 어떤 대우를 받아요? 현장에서 힘든 건 없어요?” 그 말에 마음 한 켠에 쌓여 있던 서러움이 스르르 녹아내린다.

가르치려 간 자리였지만, 오히려 제가 배운 시간이었다. 이 기운을 이어 오늘도 Feel 있는 신문을 만들어야겠다.



김미정

중부매일 사회부장

“기자는 맨날 바빠요?”, “대통령 만나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는 뭐예요?”, “월급이 진짜 적어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이며 초등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전교생이 100명도 안되는 작은 시골학교이지만 기자에 대한 관심과 언론에 대한 궁금증은 여느 학교보다 뜨거웠다.

뜨거웠던 지난 7월 16일과 18일 충북 진천군 문상초등학교에서 한국신문협회의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4·6학년 학생들을 각각 대상으로 100분씩 총 3회 수업을 맡았다.

신문을 본 적 있냐고 문자 삼겹살 구울 때 봤다고 답하는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수업이 시작되자 내내 귀를 쫑긋 세우고 참여해 인상 깊었다. 기자(記者)는 기록하는 사람이면서 전달자이고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더니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다. 강사로 서 가슴이 벅찼다.

강의는 기자들의 역할과 책임, 취재경험담, 언론의 영향력과 필요성, 뉴스의 기능과 속성, 신문의 종류와 제작과정, 기자가 되는

길 등으로 구성했다. 중부매일 기사 사례들을 들어 이해를 도왔다. 특히 진천 문상초등학교가 등장한 기사들을 PPT자료로 소개하자 아이들은 “와~” 하는 반가운 환호와 함께 눈을 더 크게 뜨고 집중했다. 뉴스의 속성 중 근접성을 설명하면서였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참여도를 더 끌어올렸다. 기자가 된다면 가장 인터뷰해보고 싶은 인물이나 가장 취재해보고 싶은 주제를 정해 그 이유를 글로 작성한 뒤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 담임선생님, 아이돌 스타 등 개성만점의 답변들이 나왔다.

기자가 되기 위한 준비로 중부매일에서 매년 주최하는 NIE대회 참가와 어린이기자단 활동 등도 추천해줬다.

교육을 들은 한 학생은 “기자가 국민들을 대신해 사건사고 현장에 가고 열심히 취재해서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멋지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2학년 담임교사도 “평소에 기사를 만날 기회가 없는데 직접 학교에 찾아와 수업을 해주니 아이들이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다”고 좋아했다.

특종은 작은 일에서 나오듯이, 진천 문상초에서 신문기자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훗날 특종을 낚는 멋진 기자가 되어 다시 만나기를 기대해본다.

‘뉴스룸 AI 활용 워크숍’... 이론·실습 한 번에



지난 8월 22일 열린 워크숍에서 ‘뉴스룸과 멀티모달 AI 활용’에 대해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회장 신한수 서울경제 부국장)와 구글 뉴스테크이니셔티브·온라인신문협회가 공동주최한 ‘뉴스룸의 멀티모달 AI 활용과 크로스 플랫폼 전략’ 워크숍(사진)이 지난 8월 22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이

번 워크숍에는 회원사 디지털 담당 기자 등 57명이 참가했다.

워크숍은 AI 최신 기술 동향과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사례에 관한 전문가 강연에 이어, 실제 AI를 활용한 콘텐츠 자동화 및 기

‘NIE 패스포트 공모전’ 9월 30일 접수 마감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워크북)〈사진〉’ 공모전 작품 접수가 오는 30일 마감한다.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 학생들이 NIE 워크북에 제시된 >디지털 중독에서 탈출하라 >기사 똑똑하게 고르는 법 >저작권 이해와 침해 사례 분석하기 등 12개의 활동 과제를 신문 지면이나 신문사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 수행한 후 결과물을 신문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신문협회는 지난 5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NIE 워크북 과제를 수행할 학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후 패스포트 7천 부(초 3천 부, 중·고 각 2천 부)를 배포했다.

협회는 작품 접수가 마감되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들은 상장 및 총88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트래픽보다 독자 유대 강화에 초점...제로 클릭에 대비

INMA, '글로벌 뉴스 산업을 이끄는 5가지 트렌드'

얼 월킨슨 국제뉴스미디어연합(INMA) CEO는 지난 7월 24일 열린 INMA 라틴아메리카 콘퍼런스에서 세계 각 지역의 미디어 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글로벌 뉴스 산업을 이끄는 5가지 트렌드'를 발표했다.

세계 각 지역의 미디어 혁신 방향

월킨슨에 따르면, 각 지역의 경제·구조·문화적 상황에 따라 언론사들이 뉴스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은 다양했다.

유럽 언론사들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추세다. 그 이유로 월킨슨은 "유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자본 여유는 장기적 계획 수립과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북미는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여전히 인쇄 매체가 주

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매체 과잉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월킨슨은 "'(광고성)상품 관련 뉴스'가 넘쳐나는 등 고품질의 저널리즘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미디어 생태계에서 프리미엄 저널리즘의 확대 없이는 구독모형을 성장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라틴아메리카는 경제 불안정성, 높은 뉴스 유통 플랫폼 의존도, 정치적 압력 증가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많은 언론사가 여전히 전통적인 수익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언론사들은 여전히 전체 수익의 80%를 종이신문에서 벌어들이고 있지만, 인쇄매체는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월킨슨은 "모든 상황에 맞는 만능 해법은 없다"며 "지역 현실에 맞게 맞춤형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많은 언론사들이 구독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대형

언론사들은 독자 수익으로 생존할 수 있겠지만, 다른 언론사들은 '특별한 부가수익원' 즉 광고, 전자상거래, 서비스, 심지어 부동산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격차를 메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디지털 패키지를 성공적으로 재구성해 성공한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사례를 들었다. 뉴욕타임스는 핵심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하면서 게임, 요리, 와이어커터(Wirecutter, 리뷰 사이트), 디 애슬레틱(The Athletic, 스포츠 전문 매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더 확장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월킨슨은 "저널리즘은 여전히 핵심이지만, 성장은 전략적 다각화와 브랜드 강화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언론사의 디지털 변화를 주도하는 5가지 트렌드

월킨슨은 "전통 미디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고 있다"며 "5년 안에 우리 모두는 멀티미디어 하이브리드(융합)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생태계 변화를 주도하는 다섯 가지 트렌드를 소개했다.

첫째, '트래픽 규모보다 독자와의 직접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트래픽을 쫓던 방식에서 벗어나, 충성도 높은 잠재고객(독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AI의 진화로 인한 저널리즘의 변화'다. AI는 저널리즘의 제작 방식과 (독자의 경험과 관련된) 소비 방식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어, 저널리즘의 모든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독자 데이터 활용' 증가다. 언론사들은 데이터에 투자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수익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론사들이 직접 수집한 1차 데이터(first-party data)'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기술 실용주의' 확산이다. 기존 언론사들은 기술 접근 방식이 '자체 기술을 내부에서 개발'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엔 '외부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바로 구매해 도입'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수년간 계획을 세워 추진하던 기술 투자' 대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실행 기술'로 전환되는 추세다.

마지막으로는 '제로 클릭(zero-click)' 시대의 도래이다. 최근 검색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에서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요약 정보나 미리보기만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끝내는 '제로 클릭'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사 웹사이트로의 직접 유입은 감소하고 있으며, 뉴스 유통의 방식과 독자와의 접점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추세다.

AI로 수십 개 정보원 동시 모니터링·이메일 자동 분류

언론사를 위한 실용적인 AI 활용 사례

국제뉴스미디어연합(INMA)은 지난 8월 3일 유럽 언론사들이 콘텐츠 제작 및 편집을 지원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저자인 디지털 출판 및 디지털 수익 전략 분석 기업인 IFMS Media Ltd.의 대표 디트마 산틴(Dietmar Schantin) 박사는 "종이신문 구독자들은 포괄적인 지역 밀착 보도, 유료로 구독할 만한 고품질의 보도를 기대하지만, 많은 언론사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지역 취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AI 시스템, 즉 AI 에이전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를 모니터링, 수집, 필터링, 평가 및 조정할 수 있고, 소규모 팀이라도 체계적인 독자 분석과 맞춤형 콘텐츠 전략을 세우면 종이신문 독자의 요구와 선호도를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 모니터링 및 아이템 발굴

모니터링이란 언론사 직원들이 경

쟁사 웹사이트, 뉴스통신사, 소셜 미디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트를 확인하며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흥미로운 기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AI는 이 작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사람이 추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수십 개의 정보원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표>할 수 있다.

또한, AI는 단순 모니터링 기능에서 진화해 여러 출처를 비교·분석하고 급증하고 있는 이슈, 지역 사회 논의와 정부 발표의 상관관계 등을 찾아낼 수 있다. AI는 수치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지역적 영향력, 독점성, 독자 관심도, 심층 보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콘텐츠의 가치를 평가하는 '뉴스 가치 평가'도 수행한다. AI를 통한 모니터링 설정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수동 모니터링 작업의 일부만 자동화해도 상당한 시간을

정보원	종류
지방 정부 게시물	시의회 안건, 회의록, 위원회 문서, 예산 문서, 공공 공지 등
긴급 상황	경찰 보고서, 소방 기록, 법원 문서, 교통사고 이력 등
사설 단체	동호회, 스포츠 클럽, 지역 사회 모임 등 공지사향 및 보고서
지역 단체	교육청 공지, 비영리 단체 뉴스, 교회 소식지 등

절약할 수 있다.

수신 이메일 관리

언론사들은 매일 수신된 수백여 개의 이메일을 주제·출처·우선순위별로 분류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메일에는 보도자료, 제보, 이벤트 공지, 편집인에게 보내는 편지, 불만 사항 및 의견 등이 포함된다. 일부 언론사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이메일 관리를 담당하던 보조 직원을 줄이면서, 숙련된 기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AI는 이러한 이메일을 자동으로 필터링하고 분류해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을 돕고, 조직 내 적절한 부서나 기자에게 이메일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AI는 제보 메일에 자동 응답을 전송하거나 상세한 설문지를 전달해 추가 정보 요청하고, 시급한 기사의 후속 조치에 대한 알림을 예약할 수도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독자들의 후속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다만, 이메일 콘텐츠를 분석하고, 텍스트 및 비텍스트 정보를 정확히 추출하며, 적절한 이메일을 필터링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AI 시스템을 구성(환경설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콘텐츠 초안 작성

생성형 AI는 콘텐츠 초안 작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시의회 회의 사전

안내(안건 포함), 주요 정보가 포함된 행사 공지, 지역사회 소식 등이 포함된 짧은 글의 초안을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편집·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은 종이신문의 단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템플릿 기반으로 기사 자동 작성

AI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을 간소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정보 등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자연어)로 변환하는 기술인 템플릿 기반 자연어 생성이다. 구조화된 데이터와 사전 작성된 템플릿 및 규칙을 사용해 기사를 작성하므로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작한다. 노르웨이 일간지 베르겐스 티덴데(Bergens Tidende)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스포츠 요약, 부동산, 날씨, 금융 등의 데이터를 AI를 활용해 뉴스를 제작하고 있다.

신문협회, ‘신문읽기 캠페인’ 전개

신문협회는 전 회원사와 함께 ‘신문읽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협회가 제작한 신문홍보 광고 ‘신문이 내 손에, 세상이 내 눈에’ (5단 통)를 모든 회원사가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지면에 일제히 게재한다.



또 신문협회는 8월 3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신문 홍보 현수막(사진)을 프레스센터 외벽에 게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신문의 사회적 기능·역할을 알리고, 신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 기사 83건, 광고 72건 주의 결정 신문윤리위 7월 심의 결과

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7월 9일 제999차 회의를 열고 신문협회 회원사의 기사 83건과 광고 72건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등 위반으로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표). 심의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리위 홈페이지(www.ikp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기사 및 광고 심의 현황

구분		건수
일간신문·통신	기사	1
	주의	83
	경고	0
온라인신문	광고	72
	주의	0
	경고	0
온라인신문	기사	187
	주의	0
	경고	0
온라인신문	광고	39
	주의	4
	경고	4

인사

세계일보 새 발행인에 이기식 이기식 교수



세계일보는 1일 새 발행인에 이기식 선학UP대학 원대학교 겸임교수(사진)를 선임했다.

학력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정치학 석사 △선문대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
약력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부협회장 겸 전략기획실장 △선학 UP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선문대학교 신학과 겸임교수

회원사 동정

경인일보, 2025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경인일보(발행인 홍정표)는 오는 28일 송도국제도시에서 ‘2025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하프, 10km, 5km로 진행되며,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출발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songdorun.net)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032-861-3202.

대한경제, ‘2025 대한경제 에너지 전략포럼’

대한경제(발행인 김상수)는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0일 강남구 선릉회관에서 ‘2025 대한경제 에너지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에너지전략포럼은 에너지 산업의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사다. 포럼 주제는 ‘AI(인공지능) 시대, 안정적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이다. 문의는 대한전기협회(02-2223-3934).

매일경제, 제1기 디지털·AI 융합 최고위과정 개강

매일경제(발행인 장승준)는 오는 24일 ‘제1기 디지털·AI 융합 최고위과정’을 개강한다. 이번 과정은 CEO·CFO, 고액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자산의 구조·시장 분석, 회계·세무·법률 대

응 등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일정은 8월 24일~12월 10일로 매주 수요일 18~21시(석식 포함) 매경교육센터에서 진행한다.

머니투데이, ‘웹툰형 기사’ 발행

머니투데이(발행인 강호병)는 지난 8월 26일 세계 언론 최초로 ‘웹툰형 기사’를 발행했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자사 과학기술분야 연재 콘텐츠 ‘3분 곰국’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형 기사 ‘곰국요정 상담소’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이 콘텐츠는 의문의 캐릭터 ‘곰국요정’이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남긴 누리꾼의 고민을 과학기술 논문을 기반으로 해

결해 주는 에피소드형 웹툰이다. 매주 하나의 에피소드를 2개의 화로 나눠 화·목요일 낮 12시에 인스타그램 계정(@gomgook_fairy)을 통해 한화씩 공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서체 21번째 업그레이드

조선일보(발행인 홍준호)는 지난 8월 19일 서체인 ‘조선일보 명조체’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920년 창간 이후 105년 동안 이번까지 모두 21차례 독자적 서체를 개발했다. 이번 서체는 한글 초성·중성·종성을 조합해 만들어낼 수 있는 글자의 숫자를 기존 2934자에서 1만1172자로 대폭 늘려 한글의

모든 글자를 구현해낼 수 있게 됐다.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글로벌 미디어 컨퍼런스 개최

중앙일보(발행인 박장희)는 오는 17~18일 중구 명동 롯데호텔에서 창간 60주년 글로벌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뉴스의 미래, 미래의 뉴스-지정생존자의 요건(글로벌 미디어 비즈니스 전략, 상품 중심 뉴스 혁신 등) △혼돈의 시대, 경계를 넘는 혼종(한계와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글로벌 리더들)을 주제로, 기술 혁신이 미디어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조망하고 생존 전략과 비전을 모색한다.

▶1면에서 계속

전통적인 채널이 약화됨에 따라 언론사들은 수익 흐름을 다시 통제하기 위해 광고주와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 가지 유망한 접근 방식은 고품질 네이티브 광고와 프리미엄 스폰서십의 개발이다. 언론사는 프리미엄 콘텐츠, 퍼스트 파티 데이터, 혁신적인 광고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광고 수익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

④자선 파트너 자선 기금은 저널리즘의 재정 생태계에서 빠르게 핵심적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맥아더 재단(MacArthur Foundation)은 최근 기후 저널리즘을 지원하기 위해 6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발표했다. 이러한 지원의 증가는 뉴스룸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독립 저널리즘이 계속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교육 깊이 있는 전문성과 오랫동안 신뢰받는 정보 출처로서의 명성을 활용해 많은 언론사들은 매력적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공

하지만, 전통적인 강의 이상으로 매력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엄격한 교육 콘텐츠와 언론사의 핵심 저널리즘 가치를 조화시켜야 한다.

⑥브랜드 라이선서 브랜드 이름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라이선스함으로써 언론사들은 전통적인 광고를 훨씬 넘어서는 수익원을 개척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독자와 더 깊은 연결을 만들며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창출한다.

⑦클럽·멤버십 모델 언론사들은 독자와의 관계를 심화하고 수익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멤버십 모델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맞춤형되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멤버십을 통해 언론사들은 수익 모델을 혁신하고 수동적인 독자층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로 전환할 수 있다.

⑧게임 제공 게임은 단순히 독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넘어 수익 창출을 위한 강력한 기회를 제공한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게임 내 광고를 도입하고, 월 6달러의 게임 전용 상

품을 선보이는 등 게임을 수익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

⑨정책 연구소 많은 언론사들이 깊이 있는 지식 저장소를 활용해 싱크탱크로 변신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은 기업 및 정부 고객을 위해 고품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 및 분석 부서를 신설해 산업 예측 및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⑩베팅 정보 미국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되면서, 언론사들은 스포츠 도박 회사들과 콘텐츠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폭스 뉴스는 미국 선도적인 스포츠 도박 회사 팬듀얼(FanDuel)의 18.6% 지분을 확보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승산(Odds Against)’ 시리즈를 출시하며 스포츠 베팅에 대한 종합적인 보도, 예측 분석, 베팅 조언을 제공한다.

⑪제휴 마케터 언론사들은 제품 리뷰, 구매 가이드, 선별된 상품 목록에 제휴 링크를 통합하고, 제품 링크를 통해 발생한 판매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제휴 마케팅을 채택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사용자 경험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제휴 링

크를 통합한 고품질, 매력적인 콘텐츠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⑫기록 보관 언론사들은 방대한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특히 AI의 발전으로 이러한 아카이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며, 독자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는 광범위한 여행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챗 인터페이스를 구축 중이다. 아카이브 기반 상품은 현재 대부분 구독 패키지에 포함돼 있지만, 수년 내 독립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⑬IT서비스 제공 디지털 시대에 많은 미디어 회사들이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에서 기술 혁신자로 진화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내부 전문성을 활용해 최첨단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IT 라이선스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⑭이벤트 주관 언론사들은 스폰서십, 티켓 판매, 유료 전시회부터 대면, 온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적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 타임은 2022년

10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이벤트 수를 두 배로 늘리며 이벤트 수익이 전년 대비 55% 성장했다.

⑮마켓플레이스(시장) 일부 언론사는 브랜드 신뢰도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을 넘어 직접적인 소비자 상거래를 주도한다.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전문매체 타임 아웃(Time Out)은 타임 아웃 마켓(Time Out Markets)을 설립, 리스본, 뉴욕, 보스턴 등 여러 도시에서 최고 현지 셰프, 다양한 식당을 소개하고 문화 행사를 선보였다. 라이프스타일, 식사, 여행,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트렌드 세터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협회보

발행인	임채청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